

‘지지부진’ 전주교도소 이전...부지 재공모

숙원사업 예산 포함 인센티브 50억원으로 확대 유치 희망지역 없으면 현위치 재건축 방안 검토

지지부진했던 전주교도소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주시가 유치 희망지를 다시 공모할 계획이다. 지난 4~6월 1차 공모 때 적합한 곳이 없어 무산됐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6월 7일부터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공모에도 유치 희망지역이 없으면 법무부와 협의해 현 부지에 교도소를 재건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모에서는 인센티브(30억원)가 적다는 여론에 따라 20억원을 증액, 총 50억원을 유치 희망지역에 지원할 계획이다. 시가 인센티브를 늘린 것은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교도소 이전을 받아들이는 지역에 대한 지원액이 30억원으로 미미한데다 이마저도 마을 진입로·보도 개설, 상·하수도 시설, 도시가스 공급 등 간접 지원 방식에 그쳐 별 관심을 끌지 못했기 때문이

다. 30억원의 교도소 이전 지역 진입 도로 개설, 마을 앞 보도 설치, 상·하수도 설치 등 인프라 구축에, 20억은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쓸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1972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들어선 전주교도소는 11만㎡ 규모로 당시 도심 외곽에 자리했었다. 최근 급격한 도시 팽창으로 재산권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주장하는 주민의 이전 요구가 거세다. 이전된 지 42년이 지나다 보니 교정시설이 노후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인근 고층 아파트에서 교도소 안이 환히 들여다보이는 등 문제가 많아 전주시가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전주시가 2011년 전주시 상림동으로 이전할 것을 법무부에 추천했으나 현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전주시는 전주교도소 후보지 자격에 대해서 부지규모가 19만8348㎡(6만평) 이상으로 가능한 전주법원·검찰청과 가까운 지역, 민원인의 접근이 편한 지역을 짚고 있다. 전주시의 한 관계자는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인센티브가 적지만 대규모 토지를 가진 문중이나 자산가들이 공모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유치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전북 올 첫 벼 수확 지난 5일 정읍시 덕천면 상하리 들녘에서 전북 도내 첫 벼 수확작업이 한창이다. 쌀전업농 강영운 씨는 극 조생종 '운두벼'를 지난 4월 10일 심어 117일 만에 수확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전북 3번째 풍력발전소 생긴다

군산 제2산단에 올해말 완공

전북지역에서는 3번째가 될 전북 군산 산단단지 내 풍력발전소가 오는 연말에 완공된다. 전북도는 6월 "군산 제2산단내 폐수처리장 여유부지에 150억원을 들여 풍력발전기 4개(총 6.6MW 규모)를 건립하기 위한 공사를 오는 9월에 시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풍력발전소가 건설되면 전북도가 2002~2007년 군산 비응도에 건설한 군장 풍력발전소와 현대중공업이 군산 제1산단에 건설한 풍력발전소에 이어 3번째로 건설되는 발전소가 된다. 3개 발전소의 총 발전용량은 16.5MW가 된다.

도는 산업부의 발전사업 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9월 초에 공사를 시작해 연말에 풍력발전소를 준공할 계획이다. 도는 육상풍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2000년대 초부터 도내 8개 지역(동부권 4개소, 서해안권 4개소)에 민간자본 등 6천200억원을 투입해 250MW 풍력발전단지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 한 관계자 "군산산단에 입주한 풍력기업의 기술개발과 시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발굴한 사업"이라며 "현대중공업 등 군산에서 가동중인 중소 규모 풍력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여름 전지훈련은 '남원이 최고'

올해 육상 등 2000명 방문 지리산 고원지대 등 인기

남원지역이 육상과 축구선수들의 여름 전지훈련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남원시는 5월 "올 들어 2000여명의 선수가 남원지역에서 전지훈련을 마쳤고, 최근 지리산 고원지대와 춘향골 체육관에는 육상, 펜싱 등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상은 실업팀인 삼성전자를 비롯해 건국대학교, 코오롱, 경기도청 등 15개팀 80여명의 선수들이 산내와 주천면 일대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도 춘향골 체육관에서는 펜싱 국가대표 상비군·꿈나무들이 맹훈련을 하고 있다. 남원은 지리산으로 대표되는 고원지대와 평야지대를 두루 갖추고 있어 전지훈련을 위한 천혜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특히 고원지대에서의 훈련은 심박수 감소, 적혈구 증가, 심폐지구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과학적으로도 증명돼 남원의 고원지대는 육상 훈련에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 있다. 남원은 마라톤에서 한국 최고 기록을 3번이나 갱신한 김완기 선수를 배출하는 등 한국 마라톤 선수배출의 젖줄 역할을 했을 정도로 우수한 훈련 환경을 자랑하고 있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

전남 소식

신안군의회, 파행 한달 만에 원구성

의장 양영모·부의장 최춘욱 양 의장 "군민들께 죄송하다"

신안군의회가 지난 5일 제235회 신안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제7대 신안군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지난달 7일부터 제7대 신안군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위한 회의를 시작했으나 의결 불일치로 원구성에 난항을 겪었다. 그동안 30여 일간의 내분을 정리하고 5일 의원간의 협의를 통하여 만장일치로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하는 등 제7대 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235차 임시회에서 의장 양영모 의원(4선·사진), 부의장 최춘욱 의원(조선), 의회 운영위원장 조영훈 의원(재선), 행정복지위원장 이종주(조선), 산업건설위원장 이원용(조선)을 각각 선출했다. 양영모 의장은 "지난 한 달 여 동안 원구성에 지연으로 군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사죄하고 앞으로 군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lee@



유두석(오른쪽에서 네번째) 장성군수와 농업인들이 지난 5일 농업인 회관에서 '장성군 귀농인협의회' 사무실 현판식을 갖고 있다. <장성군 제공>

'장성군 귀농인협의회' 사무실 개소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내 상담·토지·주택현황 등 제공

장성에 귀농인들의 보급자리가 문을 열었다. 장성군은 6일 "장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5일 농업인 회관에서 '장성군 귀농인협의회' 사무실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에 결성된 장성군 귀농인협의회는 회원 간 귀농에 따른 농업기술과 경험 등을 상호 교환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에 귀농을 희망하는 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귀농상담과 토지 및 주택 현황 등 각종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체다.

하지만 별도의 사무실이 없어 적극적인 활동에 다소 제한적이었다. 이번 사무실 개소함에 따라 귀농인들이 지역 사회의 주력으로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동철 장성군 귀농인협의회장은 "회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생겨 매우 기쁘다"며 "장성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후배 귀농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귀농선배로서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도시민들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도와 인구유입 및 농촌 활력 증진에 앞장설 것"이라며, "매력있는 장성으로 귀농해 제2의 인생을 맞닥 붙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4성급★
호텔건물매매

- 현재 노인요양시설 허가 취득
- 엘리베이터 설치 및 리모델링공사 완료
- 목포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위치
- 4성급호텔, 노인병원 등 즉시 사업가능 (커미션은 휴업중)
- 주차장 및 부속상가 건물 3동

· 한국건설원 감정가 보다 20% 감액 매매 예정
· 매매가격 상담 후 결정
· 현장 답사 요망

목포시 대의동 2가 1-9번지의 3필지(지상 9층 지하 1층)
토지면적 3,478㎡(1,054평)/건축면적 7,091㎡(2,149평)

연락처 010-9823-7781, 010-9696-8701

NAVER **다들 물어봐** **농협**

단비플라워

죽아와원3단 근조와원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의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저렴한 공장용지
본촌산단 공장용지
물류창고부지 최적

· 면적 : ① 39,600㎡
② 23,600㎡
· 매가 : 3.3㎡ 당 90만
◎분할도 매매 가능◎

최고의 전원주택지
서구 세하동 최고 요지
정남향 앞도로 점, 조망권 최고!!

· 지역 : 1종 주거지역
· 지목 : 전.
· 면적 : 1917㎡
· 매가 : 3.3㎡당 120만

투자 유망
무안군 운남면 내리 확대한 절경의 해변

· 지역 : 계획관리지역
· 지목 : 전 및 대지,
· 면적 : 13,939㎡
· 매가 : 4억 6천

행운(구 대창)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송창석
011-642-7777

收益 **33.3% 호텔**
"급매매"

대지 6,600㎡, 건평 2,192㎡
객실 48개, 지하수, 심야전기
2013년 리모델링 완료
최고급 럭셔리 호텔급 시설
지역 독점상권, 접근성 최고

- 월매출 8천만원 / 지출 3천만원
- 매출 장부확인 및 계약부조건 가능
- 3년 운영 시, 투자 원금 회수 가능

- 매가 33억 (용자 15억), 현금 18억
- 가격 절충 불가, 실수요자만 문의 바람

신세계공인중개사사무소
문의전화 010,5188,5515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500만원정도
토지 가격 만도
7억5천만원정도

매매가격
8억8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